

연구논문

한국의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탐색적 분석*

최성수** · 정승연*** · 이수빈**** · 김민재*****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 현상을 탐색적으로 분석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구축된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Korea Inequality of Opportunity Database)가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집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 조사와 200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된 분리 지표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구유형과 소득 집단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지역 규모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비대도시 지역에서 거주지 분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은 분리의 주요 맥락으로 작동하였으나, 그 효과는 시·군·구별 주거 구성 맥락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지 분리와 학교·직장 소재지 분리는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았다. 특히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학교 소재지 분리는 거주지 분리보다 강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넷째, 생애과정에 따른 활동공간 경험의 분리 수준이 달라지면서,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다양성 접촉의 기회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에서 전국적 범위로 사회경제적 분리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첫 시도이며, 향후 분리 및 사회계층 연구에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경제적 분리, 거주지 분리, 활동공간,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

* 이 연구 및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한국기회불평등데이터베이스(KIOD)의 구축은 연세대학교 CLIO 사회발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 논문의 온라인 부록은 다음 링크에 접속, 확인할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view/kiodyonsei/publications/paper_01.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s.choi@yonsei.ac.kr), 제1저자, 교신저자.

*** Brown University 사회학과 박사과정(seungyeon_jung1@brown.edu),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sblee8904@gmail.com),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minjaek@yonsei.ac.kr), 공동저자.

I. 서론

분리(segregation)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한 지역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따로 혹은 같이 살거나 활동하는 정도를 의미한다(Fong et al. 2021). 사회경제적 분리는 서로 다른 지위나 조건에 놓인 집단들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에 따라 상호접촉 및 상호작용 기회가 얼마나 열려 있거나 차단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리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대중교통이나 여가 공간 등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분리는 불평등과 사회계층화의 핵심적 메커니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배제와 독점을 통해 위계적 구조가 발생하고 공고화되는 계층화 과정(Weber 1978[1922])이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분리라고 할 수 있다(Fiel 2015). 분리는 단순한 인구 분포상의 차이가 아니라, 집단 간 상호작용과 접촉 가능성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시민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g et al. 2021; Mijs & Usmani 2024). 집합적 역량과 사회자본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기능하며(Chetty et al. 2022), 궁극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분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인종 집단 간 거주지 분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Massey & Denton 1988). 이후 학교 분리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Reardon & Owens 2014; Owens 2018), 학교와 거주지 간 관계가 어떻게 분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Boterman et al. 2019; Owens 2017; Rich et al. 2021). 직장 분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들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Godechot et al.(2024)의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2개의 산업화된 국가의 기업 내에서 최상위 소득자와 그 외 근로자들 사이의 분리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잣거나 디지털화가 심해지는 기업 환경에서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고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는 분리가 거주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노동 등 활동공간(activity space)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나, 몇 가지 뚜렷한 특징과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면적·정태적

분석에 머물러 있다. 이성호(2021)는 2010년과 2019년 두 시점을 비교하여 분리 양상의 변화를 기술하였지만, 종단적 분석을 통해 변화 추세나 메커니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둘째, 해외에서 사회학과 인구학을 중심으로 분리 연구가 발전해 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로 지리학 분야에서 논의가 주도되어 왔다. 분리의 사회학적 함의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보다는 지수 개발이나 측정 방법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박두진·황선재(2024)의 최근 연구가 예외적으로 빈곤층의 비율적 증가와 공간적 집적 간의 관계를 인구 구조의 변동 및 계층화 과정과 연결함으로써 사회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셋째, 마이크로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소득이나 계층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행정자료상의 대리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박두진·황선재 2024; 박윤환 2013; 이성호 2021). 넷째,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 광주, 대전 등 특정 도시 사례 연구나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권에 한정된 분석이 대부분이며(김종민·김화환 2018; 박두진·황선재 2024; 이성호 2021),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 그림을 제시한 출간 연구는 드물다. 다섯째, 학교·직장과 같은 비거주 활동공간에서의 분리에 대한 실증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러한 한계는 무엇보다 데이터의 부재에 기인한다.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를 측정하려면 소득·직업·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식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와, 이를 세분화된 공간 단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지리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분리 연구는 제한된 범위와 주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데이터 자원인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Korea Inequality of Opportunity Database, 이하 KIOD)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KIOD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시·군·구 단위의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 지표를 구축·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분리와 더불어 학교와 직장이라는 활동공간에서의 분리를 함께 탐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 연구의 기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의 수준과 특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보다 심층적인 종단적·인과적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분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자원인 KIOD를 학계에 소

개하여 분리 연구뿐 아니라 기회불평등 연구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 이론과 쟁점

1.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의 이론적 함의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는 한 집단이 자원과 기회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타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Weber 1978 [1922]).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분리는 이러한 사회적 폐쇄가 물리적 공간 속에 구체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분리는 배제와 독점이라는 사회적 폐쇄의 핵심 메커니즘이 공간적·제도적 차원에서 작동한 결과인 셈이다.

사회적 폐쇄의 결과로서의 분리는 단순한 인구 분포상의 분리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와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가 교차하는 매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Fong et al. 2021).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재할 경우 부분적 분리가 발생하며, 반대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할 경우 사회적 밀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는 거주 공간의 분포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재생산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리는 고소득층이 특정 지역과 학교에 대한 접근을 독점하고, 저소득층이 배제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폐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는 차단되고, 이질적 관계망을 통한 상호 이해와 사회자본 축적도 제한된다. Peter Blau(1977)의 논의에 따르면, 구조적 동질성이 강화될수록 상호작용의 기회는 축소되는 반면, 이질성이 존재할 때는 상호작용의 범위와 기회가 확대된다. Mijs(2016)의 연구는 교육적으로 분리가 심화된 학교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성취의 성패를 개인적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분리된 사회구조가 불평등을 구조적 요인보다 개인적 책임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발생 토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리는 또한 사회자본 형성에 중요한 제약 조건을 형성한다. Chetty et al.(2022)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분석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고소득층과 우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이

질적 네트워크에의 접근성이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연결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Sampson(2013)은 시카고 지역 연구에서 오랜 인종적·사회경제적 분리가 지역 간 집합적 자원의 불균등 축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신뢰와 상호 기대라는 형태의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이 약화된다는 점을 짚어낸다. 분리가 개인 수준의 상호작용 기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집합적 역량과 자원의 형성에도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는 사회적 폐쇄의 공간적·제도적 실체로서 작동하며, 배제와 독점 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자본 형성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분리는 단순한 인구 분포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거주지 분리와 활동공간 분리: 네 가지 쟁점

우리 연구는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와 더불어 학교(school segregation) 및 직장(workplace segregation)이라는 활동공간(activity space)에서의 분리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론적 쟁점에 대한 경험적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수준 및 불평등과 분리의 관계

지역의 평균 소득 수준이나 불평등 정도가 분리의 정도를 기계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분리는 본질적으로 집단 간 이중분포의 공간적 패턴(누가 어디에 함께/따로 사는가)에 관한 문제인 반면, 평균 소득이나 지니계수는 단일분포의 요약치이다. 즉, 한 지역의 평균 소득이 높더라도 고·저소득 층이 같은 동네에 혼재할 수 있고, 반대로 평균이 낮더라도 집단 간 공간적 분리가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분리와 지역 수준 사회경제 지표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토지이용·주택 규제, 학군 경계, 주거형식 등 제도적·공간적 메커니즘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몇 가지 조건부 연계를 시사한다. 첫째, 미국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소득 분리의 심화와 연동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Reardon & Bischoff(2011)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불평등 확대와 함께 소득 분리가 커졌고, 특히 상층의 분리와 연관이 더 강하다는 점을 보고한다. 불평등이 상층을 다른 계층과 더 멀리 떨어뜨리는 경향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수

자 배제보다 지배 엘리트층 독점이 분리를 추동하는 더 중요한 힘이며, 분리와 불평등의 관계가 선형적이거나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메커니즘 차원에서, 불평등은 주택 구매력 격차를 확대해 가격·임대료 채널을 통해 소득별 거주지 분리를 유발할 수 있다(Owens 2019). 동시에 밀도 규제·배타적 용도지역제 같은 제도는 저소득층의 특정 관할권·학군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해 분리를 강화 할 수 있다(Rothwell & Massey 2010). 이는 평균 소득이나 지니계수의 효과가 제도적 맥락에 의해 매개·조절될 수 있음을 뜻한다.

2) 한국적 특수성,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사회적 폐쇄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줄레조(2007)는 한국 사회를 ‘아파트 공화국’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형태를 넘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위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공간임을 지적한다. 아파트 단지는 동질적인 입주자 구성을 통해 집단적 동일성을 강화 하며, 폐쇄적인 커뮤니티와 보안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는다.

박소진(2007)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교육 자원의 배제와 독점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보여준다. 강북 지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리티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아파트 거주 여부가 사교육 네트워크 접근성과 교육 기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는 ‘공간적 위계’의 핵심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아파트는 단순히 물리적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자원의 독점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박소진·홍선영(2009) 역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아파트가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과시와 위계적 구별짓기의 수단으로 활용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아파트가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강력한 기호로 자리잡았음을 지적하며, 주거 선택이 곧 사회적 지위 획득 및 배제의 수단이 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의 증가가 실제로 거주지 분리를 강화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란 개입 이후 거주지 분리 양상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 두 편은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승혜·배현희(2021)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 시·군·구에서 거주지 분리가 뚜렷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Lee & Kim(2025)은 전국 7대 대도시에서 도시 재개발이 오히려 거주지 분리를 약화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 실제로 지역 간·집단 간 분리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잠재력은 있지만 경험적 근거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아파트는 사회적 폐쇄의 구체적 공간 형식이자, 교육·주거·사회적 자원의 배제와 독점이 동시에 실현되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경험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과 거주지 분리 및 활동공간 분리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주된 질문이자 기여 중 하나다.

3) 거주지와 활동공간 분리의 연결

거주지는 분리가 발생하는 가장 기초적 차원이자 도시 사회 변동의 핵심 동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학교와 직장 등 비거주 활동공간(non-home activity space)에서 나타나는 분리 현상에 주목한다. Cagney et al.(2020)은 도시 내 이동성과 활동공간 연구를 종합하면서, 거주지라는 고정된 단위만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노출 기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일상적 이동과 활동 범위가 불평등 경험을 매개하는 핵심적 맥락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특히 활동공간의 사회경제적 편차가 누적될 경우, 주거지 차원의 분리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거주지 분리와 활동공간 분리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불평등 재생산 경로라는 것이다.

Browning et al.(2017)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층 구체화한다.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동네에 거주하더라도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구들이 일상적 활동공간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고한다. 특히 소득·학력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다양한 활동지를 선택할 수 있어 동일한 동네 이웃과 마주칠 기회가 줄어들고, 이질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구 간에는 활동지의 겹침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들의 연구는 주거지 통합이 반드시 활동공간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주거지 분리와 활동공간 분리는 별도의 연구 대상인 동시에 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주거지 분리 연구는 주로 센서스 구역 단위의 거주지 패턴을 분석했으나, 실제 일상에서는 통근, 학업, 소비, 여가 등 다양한 활동 경로에서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노출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불평등 경험이 주거지라는 고정된 경계 너머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는 축적되어 왔으나, 학교나 직장과 같은 활동공간 분리에 관한 실증 연구는 전무하다. 우리 연구는 거주지 분리와 더불어 학교 분리 및 직장 분리라는 활동공간 분리에 동시에 주목하

며 이들 간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4) 분리와 다양성 경험의 생애과정 관점

활동공간은 생애과정(life course)에 따라 제도적으로 변화한다(Kohli 2007; Mayer & Schoepflin 1989). 개인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으로 이어지는 경로 속에서 각 시기에 상이한 활동공간에 노출된다. 따라서 생애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분리와 다양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 과정에서의 이런 경험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자본 형성과 불평등 재생산의 경로를 형성한다. 생애과정 관점은 활동공간 분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더 뚜렷하게 해준다. 만일 특정 시기마다 경험하는 활동공간이 동질적인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면, 개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Blau 1977). 이는 사회적·정치적 태도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다문화 수용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제도에 대한 신뢰 등에 장기적 효과를 남길 수 있다(Mijs 2016; Mijs & Usmani 2024; Warikoo 2019). 반대로 생애과정 전반에서 이질적 집단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면, 이는 사회적 자본의 확장과 포용적 태도의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Chetty et al. 2022). 따라서 활동공간 분리의 경험을 생애과정 속에서 추적하는 것은 불평등의 재생산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 및 민주적 역량의 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활동공간 분리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우리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예비적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거주지-학교-직장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 속에서 사회경제적 분리가 어떻게 누적·강화되는지를 학술적 의제로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I.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 데이터: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 현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OD)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집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IOD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서베이와 행정통계 기반 마이크로데이터를 결합해, 기회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시·군·구 지역 단위로 구축·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KIOD 데이터 및 코드북,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시각화는 KIOD 웹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kiodyonsei>) 및 연세대학교 CLIO 사회발전연구소(<https://sites.google.com/clioisds.org/clioisds/research/kiod-%EC%97%94%EC%9A%A9-%EC%9E%84%ED%8A%8C-%ED%8B%80%ED%84%89>)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KIOD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고등교육 진학 및 재학 중 경험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 및 이동성을 추정한 지표들이 제공되는 ‘청년 기회불평등 데이터’이다. 둘째, 가구통행실태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 측정 지표들이 제공되는 ‘한국 사회경제적 분리 데이터’이다.

<표 1>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 자료원 정보

주제	데이터 출처	기간	시·군·구 (관측치) 개수	변수 개수
청년 기회불평등 (고등교육 기회 격차 및 이동성)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2008-2019 자료 병합	167개 ^{(a)(b)}	19개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거 양식에 따른 지역별 거주지 분리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2000, 2005, 2010, 2015, 2020	230개 ^(a)	10개
소득에 따른 지역별 거주지 및 학교, 직장 소재지 분리	가구통행 실태조사	2010	230개 ^(c)	36개

- 주: (a) 시·군·구 병합은 행정구역 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추정치의 신뢰성(reliability) 확보를 위해 표본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은 통합했음.
 (b) 행정구역이 분리 또는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분리 이전, 혹은 통합 이후의 구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했음.
 (c) 활동공간 소재지 분리 지표들의 경우 해당 정보 수집에 일부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응답 가구 거주지 기준 136개의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만 측정됨. 이를 포함, 데이터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 부록 A를 참조.

<표 1>은 KIOD 구축에 활용된 데이터 및 대상 기간, 시·군·구 관측치 및 변수

개수를 요약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경제적 분리 데이터’가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센서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소개한다.¹⁾

1)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교통 수요 예측,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설계를 위한 기반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 및 실시한다. 일기식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자가 하루 동안의 통행을 기록하며, 주로 출근·통학 등 의무 통행 정보를 포함한다.

시·군·구 내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하위 지역 정보가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식별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베이는 극히 제한적인데,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예외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한다. 2006, 2010, 2016년 조사 중 전국 단위 표본이 신뢰성이 높은 상태로 제공되는 2010년 자료를 활용했다. 2010년 조사는 전국 가구의 약 2.54%에 해당하는 167,296가구, 399,7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2011).

분리 지수 측정에는 가구 및 가구원들의 거주지와 활동지(학교, 직장)의 시·군·구 및 읍·면·동 정보가 활용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로는 가구소득이 이용되었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에서 가구소득은 범주형 구간(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500만 원, 500~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KIOD에서는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월 200만 원 미만 가구를 저소득 집단, 500만 원 이상 가구를 고소득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KIOD에서는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라는 취지에 맞춰 만 18세 이하 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가구유형에 따른 분리 측정 표본은 제외). 범주형 소득 자료로부터 평균 소득이나 소득 불평등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 Von Hippel et al.(2016)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했다. 우리 분석에서는 여러 추정 가능한

1)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 모두 별도의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분리 지수를 포함한 여러 시·군·구별 통계량을 추정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만일 두 데이터 간 상이한 표집 설계나 과정상의 차이로 측정 및 표집 오류 양상에 차이가 있다면 두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시·군·구별 통계량을 결합할 때 편향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자료원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KIOD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불평등 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2)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KIOD는 또한 센서스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2000, 2005, 2010, 2015, 2020년)을 바탕으로 장기적 시계열에 걸친 거주지 분리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데 이터를 구축, 제공한다. 센서스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달리 소득 정보와 읍·면·동 단위 식별자는 제공하지 않지만, 2000년 이후 20년에 걸친 패널형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서스 자료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 학력과 직업 정보의 결합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양친이 모두 대졸 이상이고 한 명 이상이 전문·사무직에 종사할 경우 ‘고학력 전문직 집단’으로, 양친이 모두 고졸 이하이면서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없는 경우 ‘저학력 비전문직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시·군·구 내 세부 공간 단위가 부재하므로, 주택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내 공간 분리가 측정되었다.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센서스 표본 역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형태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수준과 변화를 장기적 시계열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분리의 측정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분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들이 한 지역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따로 혹은 같이 살거나 활동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개념 정의의 이면에는 분리의 다양한 방법과 양상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분리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Massey & Denton(1988)은 분리 개념이 가진 다차원을 강조하면서 균등성(evenness), 노출성(exposure), 집중도(concentration), 중심성(centralization), 군집성(clustering) 등 다섯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것은 균등성과 노출성(혹은 그 역의 개념으로서의 고립성)이다(Owens et al. 2022).

균등성은 한 지역 내에서 특정 집단이 얼마나 여러 하부 공간 단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Massey & Denton 1988). 특정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읍·면·동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 시·군·구 지역은 균등성이 높은 것

이고, 몇몇 특정 읍·면·동에만 몰려 있다면 균등성이 낮은 것이다. 만약 어떤 도시에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라면, 균등할 경우 거의 모든 동네에 20퍼센트가 살고 있겠지만, 한두 동네에 80퍼센트 이상 몰려 있다면 불균등한 것이 된다.

노출성은 서로 다른 집단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거나 접촉할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구조적 기회(Blau 1977)를 보여준다. 특정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다른 집단(예를 들어, 고소득층)과 같은 읍·면·동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면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균등성과 다른 노출성의 중요한 특성은 집단의 구성 비율에 민감하다는 점이다(Owens et al. 2022). 저소득층이 많은 시·군·구에서는 저소득층 집단이 모든 읍·면·동에 균등하게 퍼져 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시·군·구 지역에 비해 그들끼리 마주칠 확률이 높다. 그만큼 다른 집단(예를 들어, 고소득층)과 접촉할 확률은 낮아진다(높은 고립성, 낮은 노출성). 반대로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시·군·구 지역일수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노출될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따라서 노출성을 측정할 때 이런 집단 구성 비율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정규화한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Owens et al. 2022).

우리 연구는 균등성과 노출성 두 차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들인 상이성 지수(Dissimilarity Index)와 노출 지수(Exposure Index)를 주로 이용해 사회경제적 분리를 측정한다. 또한 집단 구성 비율에 따른 민감성을 조정한 정규화 고립 지수(Normalized Isolation Index)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상이성 지수와 노출 지수, 정규화 고립 지수의 구체적인 수식과 계산 방법은 온라인 부록 섹션 B에 제시했다. 분리 지수의 측정에는 STATA의 seg 패키지(버전 3.0)를 사용했다(Reardon & Townsend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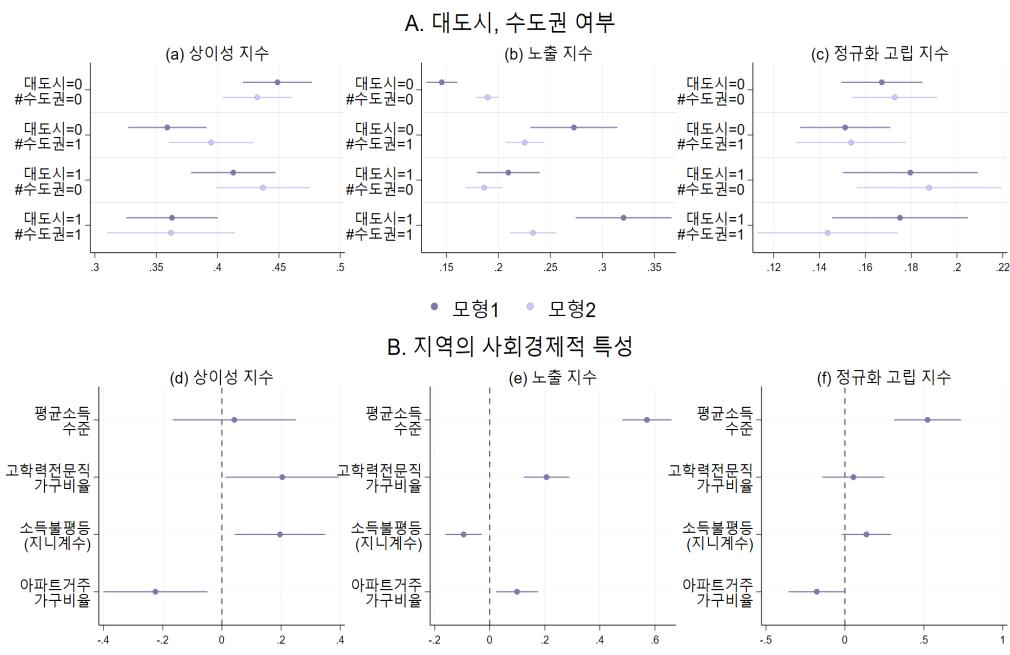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거주지 분리

1) 가구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여기서는 가구소득 집단 간 거주지 분리의 전국적 양상을 살펴본다. 마찬가지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가구소득 집단은 저소득 집단(월소득

200만 원 미만)과 고소득 집단(월소득 500만 원 이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 두 소득 집단이 시·군·구 내 읍·면·동에 걸쳐 얼마나 통합 또는 분리되어 있는지를 세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했다. 사용된 지표는 상이성 지수(두 소득 집단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노출 지수(저소득 집단이 얼마나 고소득 집단에 노출되어 있는가), 정규화 고립 지수(두 소득 집단이 얼마나 서로로부터 고립되어 있는가)이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 이 분리 지수들이 높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분석 했다.



<그림 1> 가구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지역 특성

<그림 1> 상단 (a), (b), (c)는 각각 세 분리 지수들이 대도시 및 수도권 여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준다.²⁾ 진한 색깔은 어떤 지역특성도 통제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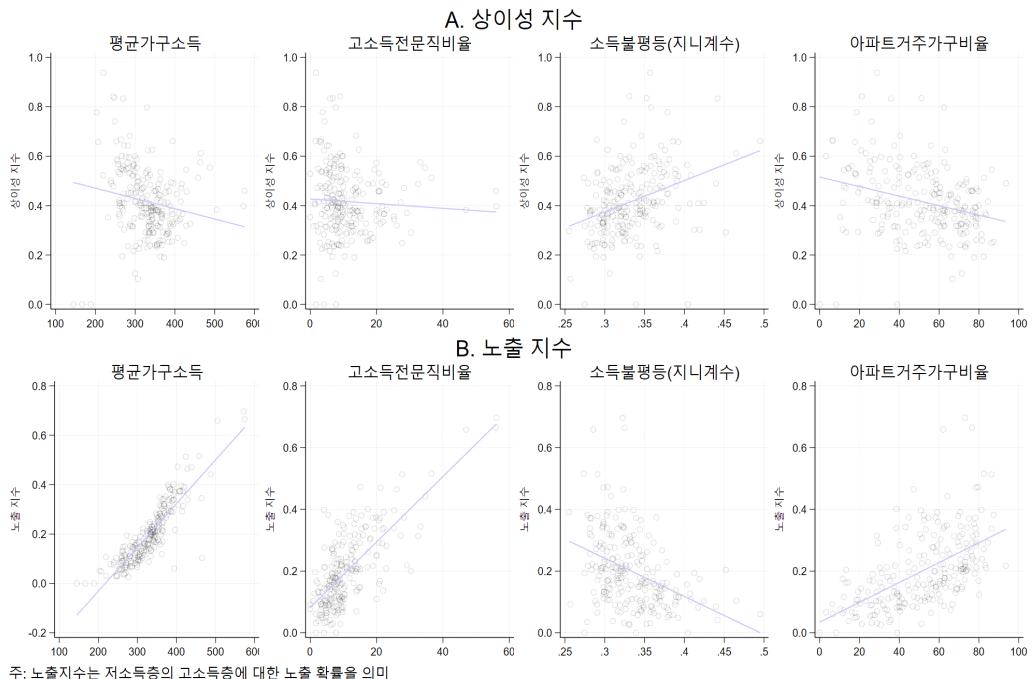
2) 본문에서는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온라인 부록 섹션 C에서 그림과 연관된 통계 분석 결과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상태의 노출 지수를, 연한 색깔은 지역의 평균 가구소득, 고학력 전문직 가구 비율, 가구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등 주요 지역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조건부 노출 지수를 보여준다(점 좌우로 뻗어 나간 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상이성 지수의 경우 대체로 수도권에서 낮고 지방의 비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 특성을 동일하게 조정하면 이 차이가 약간 달라지지만 큰 틀의 경향은 유지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대한 노출 지수도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한편 정규화 고립 지수의 경우 대도시, 수도권 여부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분리 지표인 상이성 지수와 노출 지수를 바탕으로 보면 대체로 한국에서는 소득 집단 간 거주지 분리 정도가 지방의 비대도시 지역에서 높고, 대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하단 (d), (e), (f)는 상이성, 노출, 정규화 고립 지수가 주요한 지역 특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몇 가지 유의미한 양상이 발견된다. 먼저 (d) 상이성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 가구 비율이, (f) 정규화 고립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두 변수가 두 거주지 분리 지수와 다른 방식으로 연관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대체로 높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춘 시·군·구일수록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강한 경향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거주지 분리가 약한 경향성(낮은 상이성 및 정규화 고립, 높은 노출) 또한 주목해야 할 결과다. 아파트라는 주거 양식이 동질적,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주지 분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이론적 개연성과 반대의 양상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양상은 소득 불평등이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와 관련된다는 경향성이다. 항상 통상적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향성이 세 분리 지수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2>는 상이성 지수와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대한 노출 지수가 각각의 지역 특성 변수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산포도를 보여준다.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통제하지 않은 이변량 분포이므로 <그림 1>의 (d), (e) 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패턴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도 지니계수와 상이성 및 노출 지수 간 관계가 뚜렷하게 발견된다. 소득 불평

등이 높을수록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이 각각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2> 가구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2)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분리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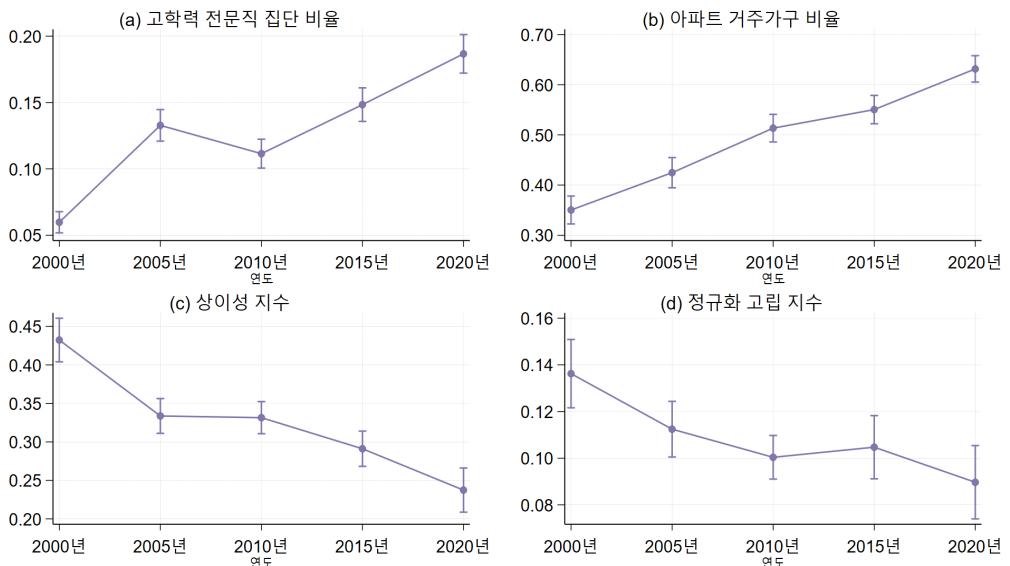
아파트 거주 가구가 많은 시·군·구 일수록 소득 집단 간 거주지 분리 정도가 약해진다는 앞선 분석결과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라는 한 개 연도 횡단면 조사에 기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간 차이를 기반으로 한 연관성을 기술해줄 뿐 인과추론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인과적 추론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을 포괄하는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IOD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의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을 바탕으로 측정 및 제공하는 시·군·구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센서스는 5년마다 조사되므로 우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다섯 개의 시점(2000, 2005,

2010, 2015, 2020년)을 바탕으로 거주지 분리 지수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다만 앞서 분석했던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 분석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센서스는 가구소득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집단 대신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 정보를 활용해 구성한 고학력(대출 이상) 전문직 가구 집단과 저학력(고졸 이하) 비전문직 가구 집단 간 분리를 측정했다.³⁾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읍·면·동 단위 식별 정보가 제공되었던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달리 센서스는 시·군·구 아래 하위 공간 단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KIOD에서는 읍·면·동 대신 센서스에서 제공하는 주거 양식 정보를 사용했다. 시·군·구 내 거주 지역이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일반 주택(단독, 다세대 포함) 지역이라는 하위 공간으로 나눠진다고 보고, 이 두 주거 유형 지역 간에 고학력 전문직 가구들과 저학력 비전문직 가구들이 얼마나 통합 혹은 분리가 되었는지 측정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어느 시·군·구 내에서 아파트에는 고학력 전문직 가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반면 저학력 비전문직 가구는 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면 거주지 분리가 강한 지역이다. 반면 아파트나 주택에 고학력 전문직 가구와 저학력 비전문직 가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면 거주지 분리가 약한 지역이다.

<그림 3>은 (a) 고학력 전문직 가구의 비율과 (b)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거주지 분리 지표인 (c) 상이성 지수와 (d) 정규화 고립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먼저 (a) 고학력 전문직 가구의 시·군·구 평균 비율은 2000년 6퍼센트에서 2020년에는 18.7퍼센트까지 증가했다. (b) 아파트 거주 가구의 시·군·구 평균도 2000년 25퍼센트에서 2020년 63.2퍼센트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거주지 분리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c) 상이성 지수를 바탕으로 보면 2000년에는 한 시·군·구 내 저학력 비전문직 가구가 고학력 전문직 가구와 비교해 아파트 지역과 주택 지역에 균일하게 분포되려면 약 43퍼센트의 가구가 재배치되어야 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4퍼센트만 재배치되더라도 균등한 분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d) 정규화 고립 지수도 같은 추이를 보여준다.

3) 각 시·군·구별 가구소득 수준(가구통행실태조사 2010년에서 추출)과 고학력 전문직 가구 비율(센서스 2000, 2005, 2010, 2015, 2020년에서 추출)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구체적인 상관관계 수치는 온라인 부록 <표 C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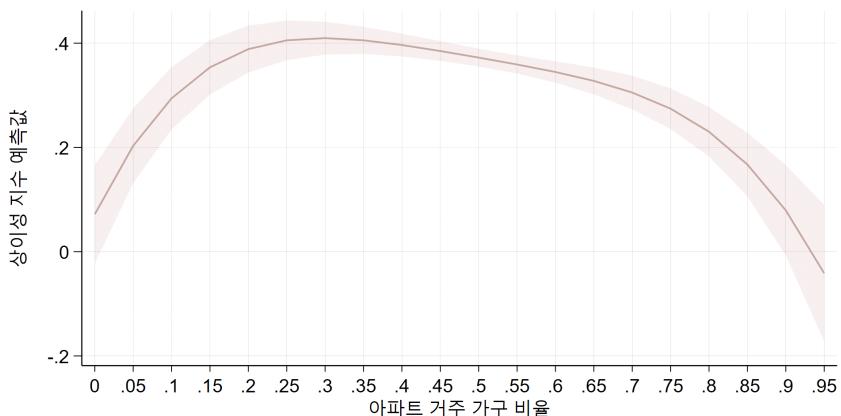
<그림 3> 사회경제적 수준, 아파트 거주 비율, 거주지 분리의 추세(2000-2020)

이런 개별적 추세만으로는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의 변화가 거주지 분리 변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각 시·군·구 단위의 거주지 분리 지수를 종속변수로,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을 핵심 독립변수로 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3>이 시사하듯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지역별 사회경제적 수준의 전반적 상승이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율과 거주지 분리 간 관계를 일부 교란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직 가구 비율과 저학력 비전문직 비율을 통제했다. 이 고정효과모형 분석이 완벽하고 엄정한 인과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횡단면 기반 분석보다는 더 나은 인과적 함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의 핵심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율과 거주지 분리 변화 간의 관계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관계의 비선형적 가능성은 열어놓고 탐색했다. <그림 4>는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⁴⁾ 독립변수의 다제곱함수의 차수를 높여가는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두 변수 간 관계는 매우 비선형적이었다(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표는 온라인 부록의 <표 C3> 참조).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은 수준(대략 25퍼

4) <그림 4>는 상이성 지수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정규화 고립 지수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역시 대동소이하다.

센트 이하)에서 증가하는 경우 거주지 분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5 퍼센트에서 75퍼센트 비율 구간에서는 두 변수 간 별다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면(대략 75% 이상) 그때부터는 아파트 거주 비율의 추가 증가가 거주지 분리의 약화로 이어진다. 즉, 아파트가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가 막 늘어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가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가 그 지역의 지배적인 주거양식이 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주 여부가 사회경제적 분리의 기제가 되기보다 오히려 분리를 약화시킨다는 의미다. 아파트와 거주지 분리 간 관계는 시·군·구마다 다른 주거양식 구성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주택 지역이었던 곳에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거주지 분리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미 아파트 개발이 포화 수준에 가까운 곳에서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은 거주지 분리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 공간 정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할 때 이 결과가 의미 있는 준거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4>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과 거주지 분리 변화

2. 활동공간 분리: 학교 소재지 분리와 직장 소재지 분리

1) 학교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 분리 측정

KIOD는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분리와 더불어 사람들의 대표적인 활동공간

인 학교와 직장에서의 분리도 측정하여 제공한다. 학교와 직장 분리도 2010년 가구 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구성했다. 가구통행실태조사 2010년 데이터는 참여 가구의 가구원들의 평일 이동 경로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를 읍·면·동 수준까지 제공한다. 따라서 가구원들 중 어린이 및 청소년 자녀들이 어느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지, 성인 가구원들은 어느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분리와 직장 분리를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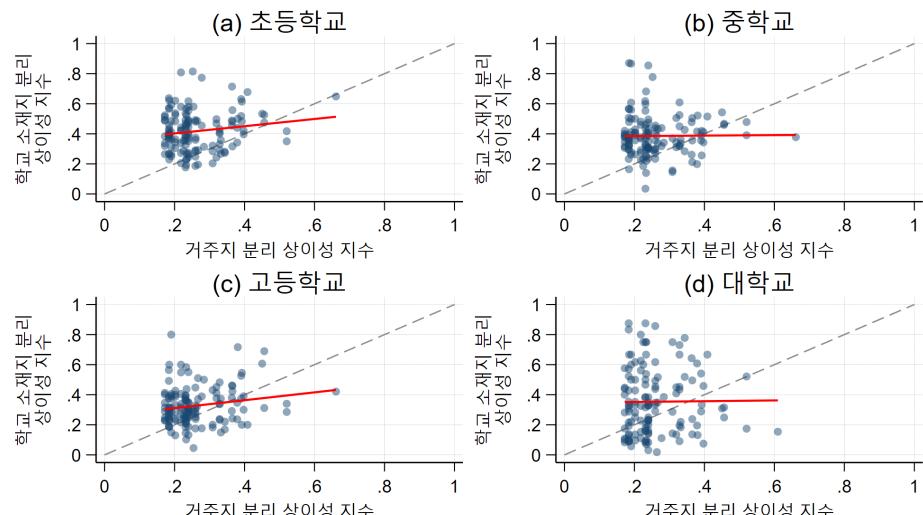
학교 분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개별 학교의 학생 구성을 그 학교가 속한 상위 지역(예를 들어, 시·군·구)의 학생 전체 구성과 비교하는 것이다. 가령 한 시·군·구 내 학교들 사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의 비율이 얼마나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의 학교를 구분해 주는 ID와 학교가 어느 지역(예를 들어, 시·군·구)에 위치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전국 학군지 수준에서 이런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KIOD는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읍·면·동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활용해 학교 단위는 아니지만, 학생이 통학하는 학교의 소재 읍·면·동을 기준으로 분리를 측정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학교 소재지 분리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분리와 학교 소재지 분리는 엄격하게는 다른 개념이지만 경험적으로는 일관성이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Owens et al. 2016). 따라서 학교 소재지 분리를 학교 분리의 대리 지표로 보고 해석하는 것도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분리 지수로는 거주지 분리와 마찬가지로 상이성 및 노출 지수를 주로 측정했다.

직장 분리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 분리는 직장(기업, 사업체)을 식별해서 시·군·구 내 직장별 근로자들의 소득 계층이 얼마나 집중 또는 편재되어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Godechot et al. 2024).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직장 소재지(읍·면·동) 정보를 이용해 소득계층 간 분리를 측정했다. 즉, 직장이 아니라 직장이 위치한 읍·면·동 지역들에 따라 얼마나 동질적인 또는 다양한 소득 계층들이 분포하는지를 본다.

2) 학교 소재지 분리

<그림 5>는 상이성 지수로 측정한 학교 소재지 분리와 거주지 분리 간의 상관관계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급별로 본 것이다. 수평축은 거주지 분리를, 수직축은 학교 소재지 분리를 보여준다. 붉은 실선은 두 변수 간의 선형 예측선, 회색

점선은 두 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점인 45도선이다. 세 가지 주요한 양상이 발견된다. 첫째, 모든 학교급에서 거주지 분리와 학교 소재지 분리 간 연관성이 예상보다 약하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거주지 분리에 비해 학교 소재지 분리가 높은 지역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45도선 위에 위치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물리적으로 다양한 소득집단이 섞여 거주하고 있는데 더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해 분리 정도가 더 강해짐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거주지를 기반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소재지 분리가 거주지 분리와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과반의 지역에서 학교 소재지 분리가 거주지 분리보다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지역에서 학교 소재지가 소득 집단 간 공간분리를 완화해주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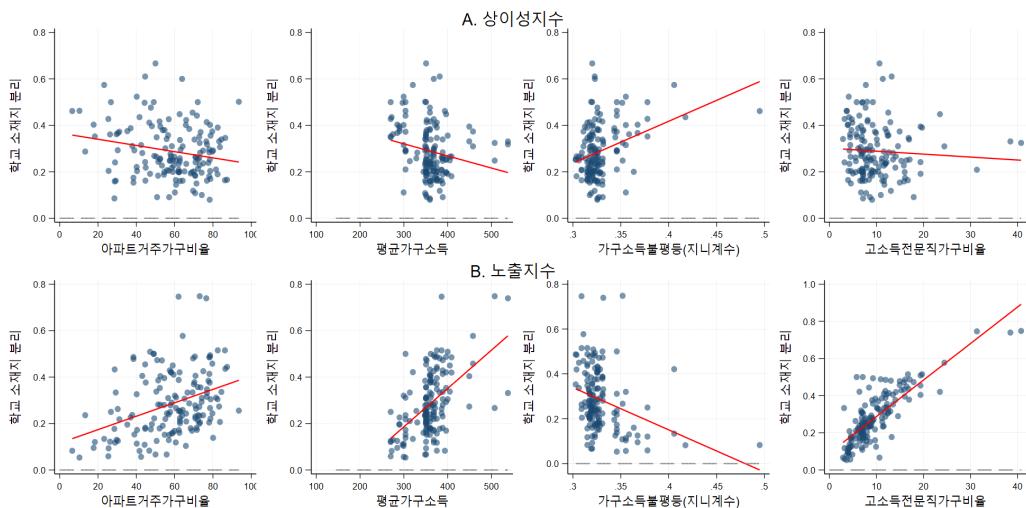


<그림 5> 학교급별 거주지 분리와 학교 소재지 분리의 상관관계

셋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특히 대학교 소재지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학교 소재지 분리의 평균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지역들 간 분산은 커진다. 이런 생애과정에 따른 학교 분리 경험 변화는 3/4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높은 학력 수준으로 진학할수록 평균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만날 기회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그런 다

양성 경험의 지역 간(대학 소재지 간) 편차는 커진다는 것이다.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지에 따라 경험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⁵⁾

<그림 6>은 시·군·구별 평균 가구소득, 고소득 전문직 비율, 가구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등 주요 지역 특성과 초등·중·고등학교 소재지 분리(상이성 및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대한 노출 지수)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두 지표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은 대체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평균 가구소득, 고학력 전문직 비율,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교 소재지 분리가 약화되고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이 높아질수록 학교 소재지 분리는 강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다만 사회경제적 수준 지표들과 학교 소재지 분리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편이어서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어렵다. 지역 내 소득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학교 소재지에 따른 소득 집단 간 분리가 강해지는 경향성은 주목할 만하다.⁶⁾ 이 결과는 소득 불평등이 심한 지역일수록 거주지 분리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그림 2>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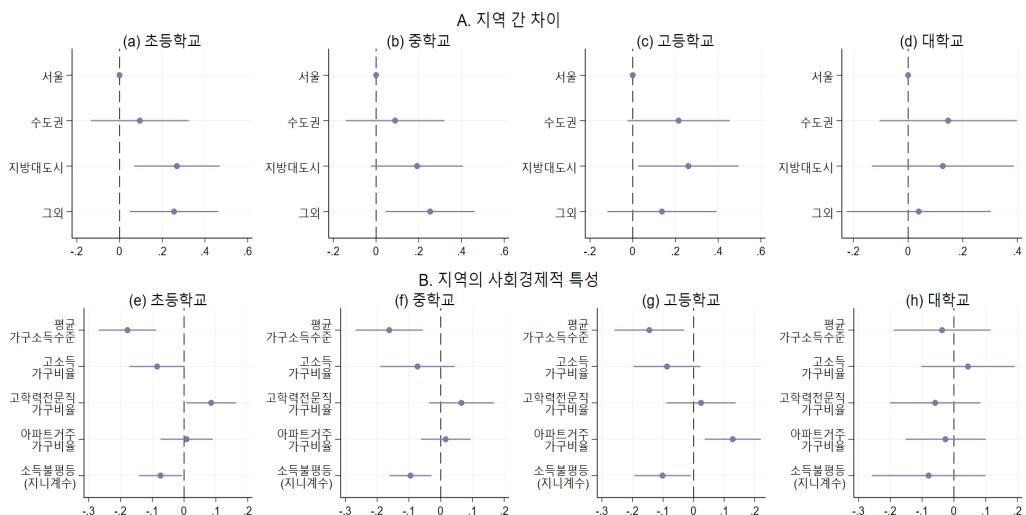
주: 빨간선은 회귀선을 표시. 노출지수는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대한 노출 확률.

<그림 6>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학교 소재지 분리의 상관관계

5) 본문에 제시하자는 않았으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그 외 읍·면 지역 간 대학 소재지의 상이성 지수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6) 고소득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노출 지수 및 집단 간 비율 차를 조정한 정규화 고립 지수를 바탕으로 한 결과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학교 소재지는 소득 계층 간 분리에 있어 거주지 분리와의 연관성은 약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거주지에 비해 분리 정도가 심하다. 또한 소득 불평등과는 정(正)적인 관계를 공유한다. 이 경우 지역의 학교 소재지의 분리 정도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거주지 분리가 선행하고 각 지역마다 공간적, 경제적, 제도적 특성에 따라 학군 체계가 사회경제적 분리를 상이한 정도로 강화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거주지에 기반해 배정되거나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대학교도 정도만 다를 뿐 마찬가지다) 학교 소재지 분리를 거주지 분리와 완전히 독립적이라기보다 거주지 분리에 학군 시스템에 의한 분리가 더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wens 2017). 따라서 우리는 학교 소재지 분리 지수값과 거주지 분리 지수 값의 차이를 학교 시스템이 추가로 동반하는 사회경제적 분리를 보여주는 별개의 지수로 보고 이것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림 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학교 소재지 분리(다면량 분석)

<그림 7>은 학교 소재지 분리와 거주지 분리의 상이성 지수 차이가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 및 그 외 지역 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상단 (a)~(d)), 가구소득,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소득 불평등 등 주요한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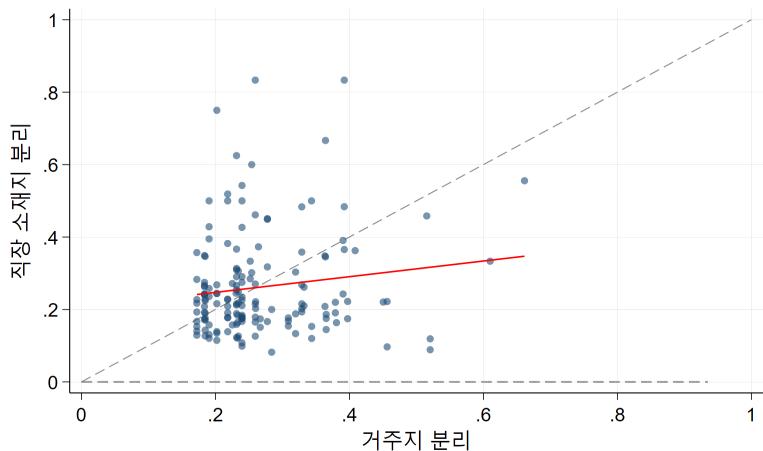
지는지(하단 (e)~(h))를 학교급별로 나눠서 보여준다. 먼저 (a)~(d)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거주지 대비 학교 소재지에서 상이성 지수가 높은 경향은 서울에 비해 지방에서 대체로 더 두드러진다. 대학교에서는 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e)~(h)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한 지역일수록 거주지 대비 학교 소재지 분리 정도가 높지 않을 경향을 보여준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난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거주지 대비 학교 소재지 분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중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 시스템이 소득 수준이 낮고 불평등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 집단 간 학교 소재지 분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지방 특히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적다. 학교가 분포하는 공간적 밀도가 약하다. 도심과 비도심 지역 간 학교 분리가 더 뚜렷해질 수 있는 여건으로 학교 분리가 더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 또 다른 가설은 거주지 분리 자체의 경향 때문에 학교 분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다. 거주지 분리 자체가 소득 수준이 높고 불평등한 지역일수록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학교 분리의 추가 기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종의 수리적 허상(*mathematical artifact*)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그림 5>가 보여주듯 거주지 분리와 학교 소재지 분리 간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 연관성을 추동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작업이 추후 요구된다.

3) 직장 소재지 분리

<그림 8>은 상이성 지수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들의 거주지 분리와 직장 소재지 분리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수평축은 거주지 분리, 수직축은 직장 소재지 분리이다. <그림 5>와 마찬가지로 붉은 실선은 선형 예측선을, 회색 점선은 45도선을 보여준다. <그림 8>은 거주지 분리와 직장 소재지 분리 간 연관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측선은 미세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 분리가 0.2~0.4 구간에 집중된 반면, 직장 분리는 더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거주지와 직장이라는 두 공간이 서로 다른 사회적, 제도적 논리에 따라 구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결과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거주지 분리 정도에 비해 직장 소재지의 소득 계층 간 분리 정도가 더 약하다는 것이다. 시·군·구 지역들 중

43퍼센트만이 직장 소재지의 소득 분리 지수가 거주지의 소득 분리 지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학교 소재지의 소득 분리 양상과 다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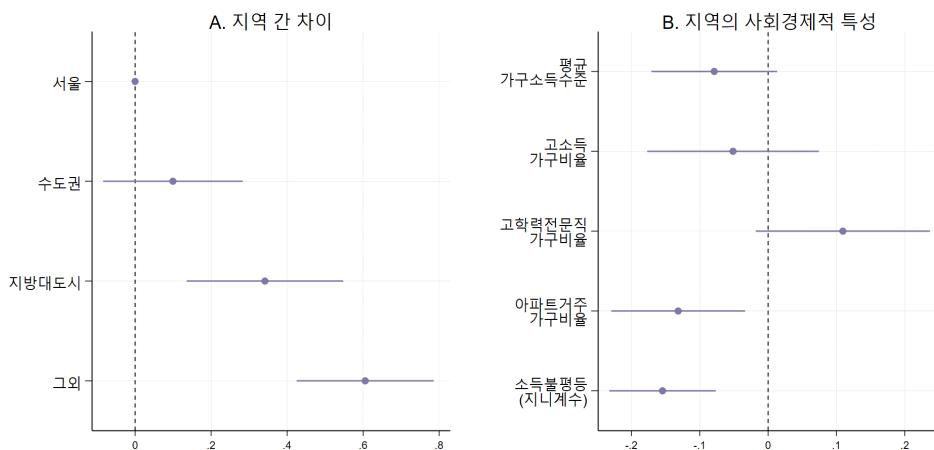
주: 분리는 상이성 지수로 측정됨.

<그림 8> 거주지 분리와 직장 소재지 분리 간의 상관관계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직장은 주거지보다 훨씬 넓은 생활권, 통근권 단위에서 형성된다.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 내 특정 산업이 집중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산업 내 고소득 전문직부터 저소득 일용직, 서비스직까지 다양한 직종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종사한다. 이런 조건은 거주지에 비해 직장 공간의 다양성을 더욱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거주지 분리는 개인의 선택이 크게 작동한다. 자신과 유사한 계층과 함께 살고자 하는 선호의 영향이 크다. 반면 직장 분리는 노동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여건이 결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유유상종(類類相從) 경향이 작동할 여지가 적다.

<그림 9>는 거주지 분리 대비 직장 소재지가 추가하는 소득 분리값이 시·군·구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9> (a)에 따르면 거주지 분리 대비 직장 소재지 분리가 약한 경향(즉, 두 분리 지수 간 차이가 작은 것)은 서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

율에 비해, (거주지 분리 대비 직장 소재지 분리의) 상대적 차이값은 경인 지역(수도권)이 10%p(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지방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각각 34%p, 61%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후자 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수도권 지역은 지방에 비해 직장 공간이 거주지 공간에 비해 훨씬 소득 계층적으로 다양하다는 의미다. 또한 평균 가구소득이 높거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직장 소재지에서의 분리 수준이 덜한 경향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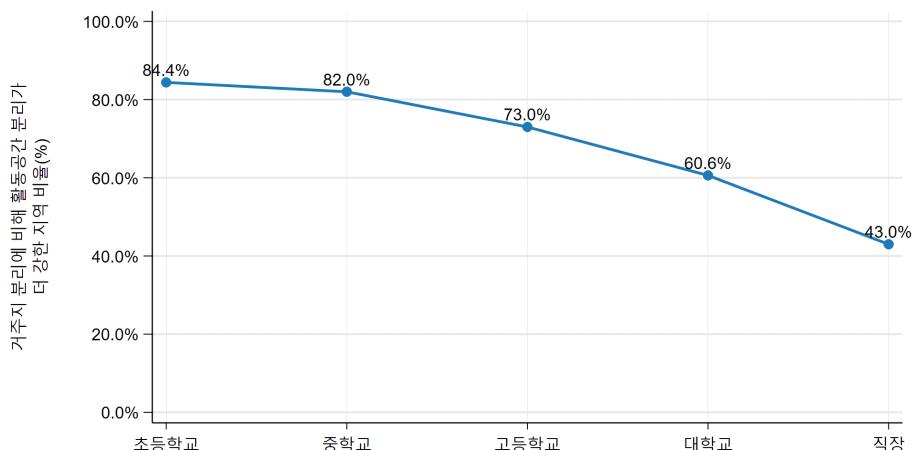


주: 종속변수는 거주지 분리 대비 직장 소재지 분리의 심화 여부(상이성 지수).

<그림 9>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구 소득에 따른 직장 소재지 분리

끝으로 <그림 10>은 학교 소재지 분리와 직장 소재지 분리 분석 결과를 개인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정리해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을 거치면서 활동공간에서 소득 계층 분리를 어떻게 경험할까? <그림 10>은 거주지 분리에 비해 학교와 직장 등의 활동공간 소재지의 분리가 더 높은 지역의 비율을 보여준다(즉, <그림 5>와 <그림 8>의 45도선 위에 있는 시·군·구 비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8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지에 비해 학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소득 분리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직장에서는 43%까지 낮아진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다양한 소득 계층과 접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공간 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활동공간의 구조적 여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상이한 집단과의 노출 기회와 경험도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 집단과의 접촉 기회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직장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애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경험의 변화 역시 상당 부분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KIOD 분석을 통해 처음 제시되는 결과다.



<그림 10> 활동공간 분리 경험의 생애과정 변화

V. 결론

우리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집단 간 거주지 및 활동공간 분리 현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기회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OD)가 제공하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의 시·군·구 단위 지표를 활용하여, 가구유형, 소득, 교육 및 직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학교와 직장 소재지라는 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 분리를 추가로 분석하여, 거주지 분리와 활동공간 분리 간의 연관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거주지 분리는 지역 규모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비중의 변화와 같은 주거형식 요인이 분리 양상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분리가 심화되는 양상은 미국에서 발견된 경향성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Reardon & Bischoff 2011). 물론 우리 연구는 횡단면 자료에 기반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추세적 경향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지 확인하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 주거 양식과 사회경제적 분리 간 관계가 비선형적이며 아파트의 지배적 지위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우리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드러낸 불일치(한승혜·배현희 2021; Lee & Kim 2025)의 해소 단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 연구는 학교와 직장이라는 활동공간에서의 분리는 거주지 분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특히 생애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강도로 경험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탐색적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분리를 다차원적·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결과는 한국 사회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다양한 집단과의 접촉 기회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이고 단선적인 함의로 귀결될 수는 없다. 그보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직장 등이 어떻게 상호 접촉의 기회를 구조화하고 있는지, 그 구조화하는 힘이 어떤 사회인구학적, 경제지리학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요청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KIOD 자료 및 현재의 연구 역시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가구통행실태조사 2010년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다소 시간이 지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정보가 응답자의 자기 보고에 기반하며, 정확한 소득값이 아닌 구간으로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 보고 소득의 고질적인 오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김낙년 2020), 월 소득 구간의 상한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2010년 기준 500만 원 이상) 초고소득층 식별이 불가능하다. 고소득층의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원 독점을 통한 폐쇄가 사회경제적 분리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험적 양상이란 점에서(Reardon & Bischoff 2011) 현재 KIOD는 분리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차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최근 발표된 고소득층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연구(김은정·김민혜 2025)와의 연계, 더 나아가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소득 분포에 기반한 측정이 가능한 행정자료의 활용이 향후 KIOD가 보완 및 확장되어야 할 방향일 것이다. 현재의 분석과 관련해서도 인구 밀도 등 사회경제적 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역 수준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정교한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 구축한 지역 수준 데이터를 바

탕으로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예비적 분석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분리를 전국적 차원에서 거주지와 활동공간을 아우르며 탐색한 첫 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KIOD라는 새로운 데이터 자원을 소개하여 향후 보다 심층적이고 종단적인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분리를 불평등 연구의 핵심적 의제로 재정립하고, 특히 거주지-학교-직장으로 이어지는 활동 경로 속에서 사회경제적 분리가 어떻게 누적·강화되는지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마중물적 시도다. 기존 사회계층화 관련 논의가 주로 불평등이나 집단 간 격차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경제적 분리는 이 격차를 만들거나 이 격차가 만들어내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배제와 독점의 과정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Fong et al. 2021), 한국 사회의 사회계층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 및 확장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향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자들이 KIOD가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군·구 수준의 분리 지수 변수들을 중요한 지역 수준의 맥락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개인이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은 개인의 건강, 정치적 태도나 행위, 사회 경제적 지위 획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분리 역시 이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맥락 변수이며, 따라서 KIOD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둘째, KIOD가 사회경제적 분리 측정을 위한 데이터 구축 노력을 공론화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0년 이상이 지난 가구통행조사 자료나 소득 정보와 시·군·구 내 하위 공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센서스 자료 변수들을 바탕으로 KIOD가 구성한 분리 지표들은 시의성이나 타당성에서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학교 분리 측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학교가 소재한 지역 정보를 대리로 삼아 분리 지수를 측정한 점도 현재 KIOD의 불가피한 한계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시간적으로 역동적이고 공간적으로 세밀한 수준에서의 상호작용과 분리의 양상을 측정하는 노력까지 이뤄지고 있다(Hofstra et al. 2017; Murthy 2024; Nilforoshan et al. 2023). 보다 정밀하고 타당한 분리 측정에 필요한 정보의 추가적 구축과 공개에 대한 연구자들 및 행정 데이터 당국의 노력이 KIOD가 제안하는 또 다른 향후 발전 방향이다.

참고문헌

- 김낙년.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1): 39-61.
- 김은정·김민혜. 2025. “대한민국 부촌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반 및 고령층 상위 소득자의 지역적 분포 연구.” *《한국인구학》* 48(3): 1-26.
- 김종민·김화환. 2018. “광주광역시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2(2): 269-280.
- 발레리 줄레조.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 타스.
- 박두진·황선재. 2024. “빈곤층 거주지 분리 양상 및 변화 추이, 2010~2023: 대전 사례의 합의.” *《한국사회학》* 58(2): 43-80.
- 박소진. 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인류학》* 40(1): 43-81.
- 박소진·홍선영. 2009. “주거를 통한 사회적 과시의 한국적 특수성: 일본과의 비교.” *《담론201》* 11(4): 35-61.
- 박윤환. 2013.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집중에 대한 연구: 기초생활수급인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4): 489-510.
- 이성호. 2021.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사회집단별 거주지 분리 특성과 변화 양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61-76.
- 한승혜·배현희. 2021.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소득계층별 주거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단지아파트 조성에 따른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 *《한국정책학회보》* 30(2): 111-36.
- Blau, P.M. 1977. *Inequality and Heterogeneity: A Primitive Theory of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Boterman, W., S. Musterd, C. Pacchi, and C. Ranci. 2019. “School Segregation in Contemporary Cities: Socio-Spatial Dynamics, Institutional Context and Urban Outcomes.” *Urban Studies* 56(15): 3055-73.
- Browning, C.R., C.A. Calder, L.J. Krivo, A.L. Smith, and B. Boettner. 2017. “Socioeconomic Segregation of Activity Spaces in Urban Neighborhoods: Does Shared Residence Mean Shared Routines?”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3(2): 210-31.
- Cagney, K.A., E.Y. Cornwell, A.W. Goldman, and L. Cai. 2020. “Urban Mobility and

- Activity Spa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6: 623-48.
- Chetty, R., M.O. Jackson, T. Kuchler, J. Stroebel, N. Hendren, R.B. Fluegge, S. Gong, F. Gonzalez, A. Grondin, M. Jacob, D. Johnston, M. Koenen, E. Laguna-Muggenburg, F. Mudekereza, T. Rutter, N. Thor, W. Townsend, R. Zhang, M. Bailey, P. Barberá, M. Bhole, and N. Wernerfelt. 2022. “Social Capital I: Measurement and Associations with Economic Mobility.” *Nature* 608(7921): 108-21.
- Fiel, J. 2015. “Closing Ranks: Closure, Status Competition, and Schoo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1): 126-70.
- Fong, E., K. Shibuya, and B. Berry. 2021. *Segregation* (1st ed.). Cambridge: Polity.
- Godechot, O., D. Tomaskovic-Devey, I. Boza, L.F. Henriksen, A.S. Hermansen, F. Hou, J. Jung, N. Kodama, A. Křížková, Z. Lippényi, S.M. Melzer, E. Mun, H. Sabancı, M. Thaning, P. Apascaritei, D. Avent-Holt, N. Bandelj, A. Baudour, D. Cort, M.M. Elvira, G. Hajdu, A. Kanjuo-Mrčela, J. King, A. Penner, T. Petersen, A. Poje, A. Rainey, M. Safi, and M. Soener. 2024. “The Great Separation: Top Earner Segregation at Work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0(2): 439-95.
- Hippel, P.T. von, S.V. Scarpino, and I. Holas. 2016. “Robust Estimation of Inequality from Binned Incomes.” *Sociological Methodology* 46(1): 212-51.
- Hofstra, B., R. Corten, van F. Tubergen, and N.B. Ellison. 2017. “Sources of Segregation in Social Networks: A Novel Approach Using Faceboo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2(3): 625-656.
- Kohli, M. 2007.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ife Course: Looking Back to Look Ahead.”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253-71.
- Lee, C. and D. Kim. 2025. “Impact of Urban Redevelopment on Low-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in South Korea’s Metropolitan Cities, 2011–2020.” *Land* 14(3): 442.
- Massey, D.S. and N.A. Denton.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Mayer, K.U. and U. Schoepflin. 1989. “The State and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187-209.
- Mijs, J.J.B. 2016. “Stratified Failure: Educational Stratification and Students’ Attributions of Their Mathematics Performance in 24 Countries.” *Sociology of Education* 89(2): 137-53.
- Mijs, J.J.B. and A. Usmani. 2024. “How Segregation Ruins Inference: A Sociological Simulation of the Inequality Equilibrium.” *Social Forces* 103(1): 45-65.
- Murthy, D. 2024. “Sociology of Twitter/X: Trends, Challenges, and Future Research

- Direc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50: 169-190.
- Nilforoshan, H., W. Looi, E. Pierson, B. Villanueva, N. Fishman, Y. Chen, et al. 2023. “Human Mobility Networks Reveal Increased Segregation in Large Cities.” *Nature* 624(7992): 586-592.
- Owens, A. 2017.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of School-Age Children and Adults: The Role of Schooling as a Segregating Force.”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3(2): 63-80.
- Owens, A. 2018. “Income Segregation between School Districts and Inequality in Students’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91(1): 1-27.
- Owens, A. 2019. “Building Inequality: Housing Segregation and Income Segregation.” *Sociological Science* 6:497-525.
- Owens, A., S.F. Reardon, and C. Jencks. 2016. “Income Segregation between Schools and School Distric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3(4): 1159-97.
- Owens, A., S.F. Reardon, D. Kalogrides, H. Jang, and T. Tom. 2022. *Measuring Segregation with the Normalized Exposure Index*. Segregation Index Research Brief.
- Reardon, S.F., and K. Bischoff. 2011.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4): 1092-1153.
- Reardon, S.F. and A. Owens. 2014. “60 Years After Brown: Trends and Consequences of School Segreg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0(1): 199-218.
- Reardon, S.F. and J.B. Townsend. 2018. “SEG: Stata Module to Compute Multiple-group Diversity and Segregation Indices.”
<https://ideas.repec.org/c/boc/bocode/s375001.html>
- Rich, P., J. Candipan, and A. Owens. 2021. “Segregated Neighborhoods, Segregated Schools: Do Charters Break a Stubborn Link?” *Demography* 58(2): 471-98.
- Rothwell, J.T. and D.S. Massey. 2010. “Density Zoning and Class Segregation in U.S. Metropolitan Areas.” *Social Science Quarterly* 91(5): 1123-43.
- Sampson, R.J. 2013. *Great American City: Chicago and the Enduring Neighborhood Effec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rikoo, N. 2019. *The Diversity Bargain: And Other Dilemmas of Race, Admissions, and Meritocracy at Elite Univers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ber, M. 1978 [1922].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 Roth and C.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Korea: Evidence from the Korea Inequality of Opportunity Database

Seongsoo Choi

(Yonsei University)

Seungyeon Jung

(Brown University)

Subin Lee

(Yonsei University)

Minjae Kim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we offer an exploratory analysis of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both residential segregation and everyday activity spaces. We draw on the newly developed Korea Inequality of Opportunity Database (KIOD), which provides county-level (si-gun-gu) indicators based on the 2010 Korean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and the 2000–202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microdata. The analysis yields several insights. First, residential segregation by household type and income varies systematically with regional scale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showing the strongest patterns in smaller non-metropolitan areas. Second, apartment housing emerges as a central context shaping segregation, though its effects are nonlinear and highly dependent on local housing composition. Third, residential segregation does not map neatly onto segregation in school locations or workplace locations; in fact, school location segreg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often exceeds that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Fourth, segregation across the life course structures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s and cross-class contact, highlighting its long-term consequences. As one of the first nationwide, multidimensional assessments of socioeconomic segregation in Korea at the county level, this study not only documents current patterns but also sets the stage for future research on segreg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Key words: socioeconomic segregation, residential segregation, activity space, Korea
Inequality of Opportunity Database (KIOD)